

비단같이 아름답다 하여 붙여진 이름 '금강'은
굽이굽이 흐르는 금강의 물줄기는 아침에도 해질녘에도 장관이다.

천리 물길로 공주의 중심을 수놓은 금강

건축기술인회 건축문화 역사탐방(공주시)

안녕하십니까. 건축기술인회 회장 장행수입니다.

제11대 건축기술인회의 첫 문화행사인 “건축문화탐방”을 아름다운 가을날,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 쉬는 천년 고도 공주에서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회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이번 행사를 위해 애써주신 기획부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건축은 단순한 건축물의 조성이 아니라 시대와 문화를 담아 후세에 전하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오늘 우리가 찾은 공주는 백제의 수도로서 찬란한 건축과 문화유산을 간직한 도시입니다.

이번 기행을 통해 우리의 뿌리를 되새기고, 건축의 본질적 가치와 의미를 다시금 생각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리라 믿습니다. 아울러 이번 문화기행이 회원 상호 간의 교류를 더욱 돈독히 하고, 한국 전통 건축의 아름다움과 지혜를 함께 느끼며, 앞으로 건축 발전의 방향에 대한 새로운 영감을 얻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건축기술인회는 회원 여러분의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건축 기술의 발전과 문화적 가치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의 행사가 회원 여러분께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 되길 바라며,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안전 우선입니다.

감사합니다.

■ 행사 개요

행사명: 2025년 건축기술인회 건축문화 탐방

일 시: 2025년 10월 18일(토) 오전 7시30분 ~

장 소: 충청남도 공주시 일대 (공산성, 무령왕릉, 송산리 고분군, 공주한옥마을 등)

대 상: 건축기술인회 대의원, 이사, 위원, 건축기술인

※ 리무진버스 2대 확보, 신청인원 증가시 차량1대 확보예정

참가비: 무료 (중식 및 선물 왕복 차량 제공)

■ 주요 일정

서울 출발(버스내 조식)

공주도착후 공산성 및 무령왕릉 전문 해설 탐방

공주시내인원 유적지 탐방

서울 복귀

■ 참가 신청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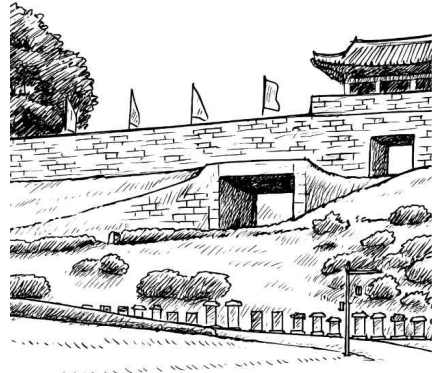
신청 마감: 2025년 9월1일 ~9월 30일(화), 버스예약관계로 빠른 신청해주시기바랍니다.

신청 방법: QR, 전체카톡

문의처: 사무총장 차승환국장 ☎ 010-7109-6789 /

■ 건축문화탐방 후보지(예상)

- ① 공산성
- ② 무령왕릉과 왕릉원
- 중식(?)
- ③ 국립공주박물관(구)
- ④ 석장리 선사유적지
- ⑤ 우금치 전적지
- ⑥ 나태주 풀꽃 문학관
- ⑦ [2018 대한민국 국토대전]하숙마을 · 기독교박물관



① 공산성



종 목 사적 제12호/ 지 정 일 1963.01.21

소 재 지 충남 공주시 웅진로 280 (산성동 2) 외

시 대 삼국시대

공산성은 백제의 수도가 공주에 있을 때, 공주를 지키던 백제의 산성이다.

금강변 야산의 계곡을 둘러싼 산성으로, 원래는 흙으로 쌓은 토성이었으나 조선시대에 석성으로 고쳤다. 쌓은 연대는 정확하지 않으며, 백제 때에는 웅진성으로, 고려시대에는 공주산성·공산성으로, 조선 인조 이후에는 쌍수산성으로 불렸다.

4방에 문터가 확인되는데, 남문인 진남루와 북문인 공북루가 남아있고 동문과 서문은 터만 남아있다. 암문·치성·고대·장대·수구문 등의 방어시설이 남아 있으며, 성 안에는 쌍수정·영은사·연지·임류각지, 그리고 만하루지 등이 있다. 또한 연꽃무늬 와당을 비롯하여 백제 기와·토기 등의 유물들과 고려·조선시대의 유물들이 많이 출토되었다.

백제 멸망 직후에 의자왕이 잠시 머물기도 하였으며, 백제부흥운동의 거점지이기도 하였다. 통일신라시대에는 김헌창의 난(822)이 일어나기도 하였으며, 조선시대 이괄의 난(1623)으로 인조가 피난했던 곳이기도 하다.

백제 성왕 16년(538)에 부여로 도읍을 옮길 때까지의 백제 도성이었으며, 이후 조선시대까지 지방 행정의 중심지였던 곳으로, 역사적 가치가 크고 연구할 가치가 있는 중요한 유적이다.

공주 공산성(公山城)은 충청남도 공주시 금강변에 위치한 백제 시대의 산성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백제역사유적지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백제의 마지막 수도였던 “사비성(현재의 공주)”을 지키기 위한 핵심 방어시설이자 왕궁터로 매우 중요한 유적입니다.

아래는 공산성에 대한 가이드입니다:

□ 역사적 배경

시대: 백제 후기 (475년~660년)

역할: 백제 사비시대의 왕궁과 방어 성곽

주요 특징:

- 금강을 끼고 있는 천연 요새
- 토성(흙으로 만든 성)과 석성(돌로 만든 성)의 결합 구조
- 성 안에는 왕궁터, 연지(인공 연못), 백제 건물지 등이 있음

□ 주요 볼거리

1. 남문 (진남루)/

- 공산성의 대표 관문/ 남문루는 조선시대에 재건된 것으로, 멋진 전통 누각 형태

2. 공산성 성곽길

- 총길이 약 2.6km/ 성벽을 따라 걷는 산책로로, 금강과 공주시내가 한눈에 보임
일몰 시간대에 특히 아름다움

3. 임류각

- 성 내 북쪽에 위치한 조선시대의 정자/ 경치 감상과 휴식에 적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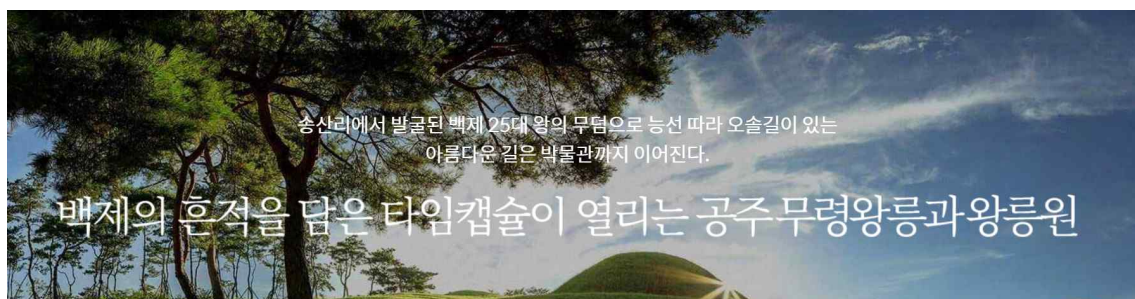
4. 왕궁지

- 실제 백제 왕궁이 있었던 터로 추정되는 곳/ 건물지와 주춧돌 흔적이 남아 있음

5. 연지

- 왕궁의 정원으로 추정되는 인공 연못/ 백제의 조경기술을 엿볼 수 있는 유적

② 무령왕릉과 왕릉원



무령왕릉과 왕릉원은 백제 문화의 정수를 보여주는 유적지로, 1971년 무령왕릉이 발굴되면서 한국 고고학계에 큰 획을 그은 유서 깊은 장소입니다. 백제의 찬란한 역사와 문화를 느낄 수 있는 곳으로, 공주에 방문한다면 공산성과 함께 반드시 들러야 할 핵심 명소입니다.

□ 역사적 배경

무령왕: 백제 제25대 왕, 재위 501~523년

왕릉 발굴: 1971년, 배수로 공사 중 우연히 발견

왕과 왕비의 실제 무덤이자, 백제 금석문이 적힌 **지석(묘지석)**이 발견된 유일한 사례

□ 주요 볼거리

1. 무령왕릉 (무령왕과 왕비의 무덤)

중국 남조 양식의 벽돌무덤

- 백제와 중국 양나라의 교류를 보여주는 중요한 유적
- 내부는 보존을 위해 복제본으로 관람 가능 (원형은 비공개)

대표 유물: 왕과 왕비의 지석, 금제 관식, 금귀걸이, 청동거울 등

2. 송산리 고분군

- 총 7기의 고분이 존재 (1~7호분)
- 무령왕릉(7호분)은 발굴 당시 밀봉 상태로 발견되어 고대 미라급 유물 보존상태
- 주변의 돌무지 무덤들도 함께 관람 가능

3. 무령왕릉 전시관

- 실제 왕릉 내부를 재현해 놓은 복제실
- 유물 전시관에서는 출토된 진품/복제품 관람 가능
- AR/VR 영상, 디지털 가상체험 콘텐츠 제공

4. 왕릉원 야외 산책로

- 자연 속에 펼쳐진 고분군과 조경
- 한적하고 아름다운 분위기, 사진 명소

□ 대표 유물

유물	특징
지석(誌石)	무령왕의 이름, 사망일자, 장례일자 기록
금제관식	왕관의 장식물로, 정교한 금세공 기술
곡옥	옥으로 만든 장신구, 왕비 유물
유리구슬·청동거울	외래 문물과의 교류 증거

③ 국립공주박물관



1. 국립공주박물관

총면적 1만 4,000㎡(4,200평), 전시관 건물 1,600㎡이다. 현재 상설 전시되고 있는 유물은 무령왕릉 출토 금제관식(국보 제154, 155호)과 석수(국보 제162호) 등을 포함하여 국보 14건 19점, 보물 4건 4점 등 중요 유물 약 1,000점 등이 있다. 전시실은 무령왕릉실, 웅진문화실, 야외정원의 3곳의 상설전시공간과 1곳의 특별전시실로 구성되어 있다.

1층 무령왕릉실은 무령왕릉에서 발굴된 문화재가 전시되어 있다. 발굴을 통해 출토된 108종 2,906점의 유물 중 선별하여 묘지석, 왕의 관식, 다리작명 은제팔찌 등이 전시되어 있으며 왕과 왕비의 목관도 복원되어 있다. 특히 3D영상시스템을 갖추어 관람객들이 출토유물의 모든 면을 직접 관찰할 수 있게 하였고 무령왕릉과 관련된 영상물도 상영하고 있다.

2층 웅진문화실은 천안 용원리유적, 공주 송산리고분, 공산성 출토품 등 총 130여점이 전시되어 있다. 특히 최근 높은 관심 속에 발굴되어 4~5세기 무렵 공주지역 지방 세력의 존재를 밝혀준 공주 수촌리 백제고분 출토품들도 공개되어 있다. 이와 함께 통일신라 이후 이 지역의 백제적 전통을 보여주는 계유명삼존천불비상 등 불교미술품들을 전시하고 있으며, 웅진문화 관련 영상물도 상영하고 있다.

야외정원에서는 반죽동의 대통사지 석조와 웅진동 서혈사지의 석조여래좌상 등 공주 일원에서 출토된 70여점의 석조미술품들을 전시하고 있다.

국립공주박물관은 백제문화의 정수를 간직한 대표 국립박물관으로, 특히 무령왕릉 출토 유물을 중심으로 백제의 찬란한 문화와 예술을 만나볼 수 있는 곳입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백제역사유적지구"와 연결된 필수 방문지이며, 교육·체험·관람을 모두 만족시키는 수준 높은 문화공간입니다.

□ 박물관 핵심 특징

- 무령왕릉 출토 유물의 본거지
- 백제 웅진시대(475~538)의 역사·문화·예술 중심
- 어린이 박물관, 교육체험, 디지털 콘텐츠 다양

□ 주요 전시관 소개

1. 무령왕릉실 (상설전시 1관)

- 무령왕과 왕비의 유물 4,600여 점 중 대표작 전시
- 금제관식, 청동거울, 묘지석, 곡옥, 금귀걸이 등
- 실제 왕릉 구조를 본뜬 공간 연출
- 유물 보존 상태가 매우 우수해 고대 장례 문화의 결정체

2. 백제문화실 (상설전시 2관)

- 웅진시대(공주시기) 백제의 정치, 외교, 종교, 생활문화 전시
- 불교 유물, 벽돌무덤 모형, 백제 토기와 장신구 등
- 고분 출토 유물과 함께 백제인의 삶을 조명

3. 기획전시실

- 주제별 특별전 및 타 박물관 협력 전시 진행/ 매년 2~3회 전시 주제 변경

4. 야외전시장

- 백제 석등, 석불, 전탑 등 석조유물 전시/ 정원과 조경이 어우러진 산책코스

5. 어린이박물관

6. 체험형 전시공간

- 백제 의상 입어보기, 유물 퍼즐 맞추기 등/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는 체험학습도 다수

□ 대표 유물 TOP 5

유물명	설명
무령왕 금제관식	백제 금세공 기술의 극치, 국보
무령왕릉 지석	왕과 왕비의 장례일자 기록, 역사적 정밀성
곡옥(곡선형 옥 장신구)	고대 신앙과 장식이 결합된 옥 유물
청동거울	중국 남조와의 교류 증거
백제 토기	일상 생활 및 의례용 도구들

④ 석장리 선사유적지



충청남도 공주시 석장리동에 있는 선사 유적으로, 공주시에서 금강 상류쪽으로 5km 거리에 있는 석장리 마을 앞을 흐르는 금강 독에 유적이 있다. 사적으로, 지도상 위치는 북위 37° 20′, 동경 127° 21′ 이다. 1964년 11월에 연세대학교박물관 조사단에서 첫 발굴을 하였고,

1974년까지 해마다 1차례씩 10차에 걸쳐 발굴하였다. 1990년과 1992년에는 석장리 유적 전시관 건립을 위한 자료 수집을 목적으로 2차례 발굴하였다. 유적은 1지구와 2지구로 나뉜다. 석장리에서 처음 구석기 유물을 확인한 곳이 2지구이며 거기에서 하류쪽으로 200m 내려와 1지구 있다. 1차 발굴에서 6차 발굴까지는 2지구를 중심으로 발굴하였고, 6차에서 12차 발굴은 1지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동안 12차에 걸친 발굴에서는 1지구에서 후기구석기시대 야외 집터 2기가 나타났고 여러 가지 석기들이 층위를 달리하여 나왔다.

유적이 위치한 석장리 지역은 좁은 골짜기 사이로 금강이 흐르고 있으며 강비탈에는 골짜기 퇴적층이 강가를 따라 띠 모양으로 펼쳐져 있다. 이 퇴적층은 현재 금강 바닥보다 10m 이상 높이까지 발달하고 있으며 유적 주변은 더 가파른 편이다. 유적의 층위는 2지구에서 해발 12.6m 지점(1구덩)과 1지구 81구덩(해발 14.3m)을 기준으로 파악할 수 있다. 11~12차 발굴에서 기반암까지 발굴하여 나타난 81구덩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아래로부터 기반암-강바닥퇴적층-강가퇴적층-홍수퇴적층-비탈퇴적층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비탈퇴적층은 해발 10m 높이부터 나타나는데 산비탈을 따라 흘러내려 쌓인 층으로 찰흙과 모난돌로 이루어진 층이다. 비탈퇴적층은 해발 13m로부터 14.3m까지 찰흙으로만 이루어진 단단한 층을 이루고 그 안에 토양썰기(soil wedge) 구조가 남아 있다. 토양썰기 구조는 추위와 관련된 언땅트기 현상의 일종으로 해석되어 플라이스토세의 마지막 빙기에 나타난 것이며, 후기구석기시대의 한 표준 지층으로 보고 있다. 토양썰기 현상이 나타나는 찰흙층에서 나온 나무숯으로 방사성탄소연대 측정을 하여 20830 B.P.의 절대연대를 얻었다. 따라서 언땅트기 현상은 그보다 다소 늦은 시기인 17000 B.P. 전후에 나타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찰흙층 아래에 있는 모난돌 포함층에서는 30690 B.P.와 50270 B.P.의 연대가 나왔다.

기준 구덩의 층위와 절대연대측정 자료들을 통해서 보면 유적의 층위는 크게 3번에 걸친 퇴적 과정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기반암 바로 위에 쌓인 수성퇴적들은 마지막 빙기 이전의 간빙기 동안에 쌓인 것이고, 그 위에 쌓인 비탈퇴적은 마지막 빙기 동안에 쌓인 것이며, 찰흙층은 마지막 빙하기 후기에 쌓인 것으로 나타난다.

유적 발굴결과에 대한 보고는 그동안 여러 번의 중간 보고가 있었고, 1993년에 종합보고서가 나왔다. 2지구 1구덩에서는 기반암까지 발굴하여 나타난 결과를 바탕으로 모두 27개 지층에서 12개 문화층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12개 문화층은 가장 이른 시기의 1문화층(외날찍개 문화층)으로부터 토양썰기가 나타나는 가장 윗층의 12문화층(돌날몸돌 문화층)까지 석기구성과 제작수법에 따라 서로 다른 문화층으로 구분하였다. 그 가운데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9문화층(자갈돌찍개 문화층) 아래에 있는 지층들에서 나온 것을 구석기시대 석기로 볼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석장리 유적의 이른 시기 문화층에서 나온 석기들은 대부분 석영 암질로 만든 것이다. 석영 석기에 대한 논쟁으로부터 지층 구성에서 나타나는 현상에 이르기까지 석장리 유적에서는 전기구석기 문화층의 존재에 대해 많은 논쟁이 있어 왔다. 9문화층 아래에서는 발굴 면적이 좁고 출토 유물도 많지 않기 때문에 아직 뚜렷한 성격을 말하기는 어렵다. 11~12차 발굴에서는 1지구 81구덩에서 기반암까지 발굴하여 2지구 1구덩과 지층이 서로 연결되는 것을 확

인하였고 기반암 위에 놓인 강가퇴적층에서 외날찍개를 비롯한 몇 점의 석기를 발굴하였다. 그러나 바닥으로 내려갈수록 강물이 흘러들어와 넓은 면적을 발굴할 수 없어 그 이상의 문화성격을 확인할 수 없었다. 석장리 유적의 전기구석기문화 문제는 이제까지 나타난 성과로 볼 때, 이른 시기층에서 석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그것이 문화층으로 존재하는지의 문제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후기구석기문화는 비교적 뚜렷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1지구 51구덩에서 1969년에 1호 집터가 나온 뒤에 89·90구덩에서도 집터의 흔적을 찾았지만 제대로 밝혀지지 못했다. 12차 발굴에서 다시 91~101구덩을 중심으로 집터가 1기 나와 3호 집터로 이름하였다. 1호 집터는 강쪽을 바라보는 비탈진 곳에 있었고 집안에 화덕자리(爐址)가 있다. 3호 집터는 강흐름과 나란한 방향으로 자리를 잡고 있으며 집밖에 화덕자리가 있었다. 1호 집터는 겨울철 살림을 위한 것이고 3호 집터는 여름철에 이용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3호 집터에서 나온 나무숯을 분석한 결과 상수리나무와 단풍나무로 기둥을 만들고 그 위에 풀을 엮어 지붕으로 덮었던 구조임을 알 수 있었다.

후기구석기 문화층에서는 석기 구성이 다양한 편이다. 석기의 바탕돌은 석영을 비롯해 반암, 규암, 유문암, 편마암, 흑요석 등 여러 가지 돌을 이용하였다. 제작 수법에서는 돌날떼기 수법과 오리나시안식 잔손질 수법도 보인다. 세형돌날 떼기 제작수법은 후기구석기시대부터 나타나며 가장 윗층에는 중석기 문화층도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중석기 문화층은 12차 발굴에서 뚜렷이 나타났는데 지층 구성에서 찰흙층 위에 산화망간층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중석기 문화층에서는 세형몸돌과 함께 수정으로 만든 새기개, 작은 격지들도 많이 나왔다.

참고문헌

- 석장리 선사유적-11·12차 발굴보고-(손보기 외, 1994년)
- 석장리 선사유적(손보기, 1993년)
- 층위를 이룬 석장리 구석기 문화(손보기, 역사학보 35·36, 1964년)

□ 역사적 의의

1964년 서울대 조사단에 의해 발굴된 한국 최초의 구석기 유적
약 30만 년 전부터 약 1만 년 전까지 인류가 거주한 흔적 발견
다양한 석기·동물뼈·탄소층 등을 통해 당시 생활상 복원 가능
우리나라 구석기 연구의 시초, 교육적 가치 매우 큼

□ 주요 볼거리

1. 석장리 박물관

구석기 시대 유물 전시관/ 주먹도끼, 긁개, 찌르개 등 다양한 석기류
생활 재현관/ 선사인의 주거, 식생활, 사냥 방식 등 복원 모형
입체 영상관/ 구석기 시대 애니메이션 영상 상영

2. 유적지 야외 전시장

실제 발굴 지점 보호각 설치

야외 주거지 복원: 움집, 화덕, 도토리 저장고 등

구석기 체험공원: 선사 시대를 체험하며 놀 수 있는 공간

3. 전망대 &금강변 산책로

금강이 흐르는 풍경과 함께하는 조용한 산책 가능

구석기인의 시선으로 자연을 조망할 수 있는 명소

□ 체험 프로그램 (계절별 운영)

체험명	설명
불 피우기 체험	마찰식 도구로 불 피우기
주먹도끼 만들기	진짜 석재 사용 (안전 장비 착용)
구석기 복장 체험	모피 복장 입고 사진 촬영
동굴벽화 그리기	천연 안료로 나만의 벽화 그리기

일부 체험은 사전 예약 필요 (홈페이지 or 전화)

□ 인생샷 포인트

선사시대 움집 앞에서 구석기 복장 체험샷

금강을 배경으로 한 박물관 외부 전경

야외 모형 동굴 속 동물 벽화

⑤ 우금치 전적지



1994년 사적으로 지정되었다. 면적 51,896㎡. 1894년 10월 23일부터 25일, 11월 8일부터 11일까지 동학농민군과 관군의 격전이 두 차례에 걸쳐 일어난 곳.

1894년 10월 16일경 전봉준과 손병희가 각각 이끌던 남접과 북접의 동학농민군은 논산에서 합류하였다. 같은 달 21일 2만여 명의 동학농민군은 서울 진격로에 있는 충청감영 소재지 공주로 북상하기 시작하였다.

세 길로 나누어 공주를 압박한 동학농민군은 이인역, 봉황산, 효포 등지를 차례로 점령하였으나, 25일에 감행한 웅치 공격은 관군과 일본군의 저항으로 실패하고 말았다. 관군측의 병

력도 증강되어 경리청 소속 부대 외에 일본군 1개 대대까지 가세하여 2천여 명에 달하였다. 경천점으로 후퇴하였던 동학농민군은 11월 8일 2대로 나누어 공격을 개시하여 판치와 이인을 점령하였다. 전력을 재정비한 양측은 다음날 효포로부터 웅치와 우금치에 이르는 30리 전선에서 대격돌하였다.

우금치는 전봉준 휘하의 동학농민군 주력 1만여 명이 40~50차례에 걸쳐 돌격전을 감행한 고개였다. 그러나 동학농민군은 우세한 화력을 가진 관군과 일본군의 저항과 반격으로 이 전투에서 패배하였고, 이후 전라도 쪽으로 퇴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따라서 우금치 혈전은 동학농민전쟁의 승패를 가른 결정적인 대회전이라고 할 수 있다. 이곳에는 1973년에 건립된 동학혁명 위령탑(東學革命 慰靈塔)이 서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우금치전적지 [牛金峙戰蹟地]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 역사적 배경

시기: 1894년 11월 8일

전투 배경:

동학농민군은 탐관오리의 부정부패, 외세 침략에 반대하며 전국적으로 봉기

1차 전주화약 이후 재봉기하여 공주 진격

우금치에서 일본군 · 관군 연합과 전면전 발생

결과:

농민군 대패, 지도자 전봉준은 이듬해 체포

동학운동의 사실상 종결점

이후 갑오개혁과 일제 침략 가속화

□ 주요 관람 포인트

1. 우금치 전적비

- 전투의 희생을 기리는 기념비/1974년 건립, 간결한 디자인 속에 민중의 넋을 기림

2. 전적지 공원

- 격전이 벌어진 산자락과 들판/ 자연을 배경으로 한 역사공원으로 조성됨

3. 전봉준 동상 및 추모공간

- 녹슨 칼 대신 평화를 강조하는 조형물/ 민중 지도자로서 전봉준의 정신을 되새김

4. 우금치 역사관 (우금치전투기념관)

- 소규모 전시관으로, 전투의 배경과 경과, 인물들 소개
- 유물, 사진자료, 영상자료로 당시 상황 재현
- AR/VR 전투 재현 콘텐츠 제공 (일부 시즌)

⑥ 나태주 풀꽃 문학관



공주시에 위치한 나태주풀꽃문학관은 1930년대에 지어진 일본식 가옥으로 2014년 10월 17일 개관한 문학관이다. 한국에 있는 대부분의 문학관들이 전시관 형태를 띠고 있으나 나태주풀꽃문학관은 현재 나태주 시인이 문인들이나 문학 지망생들, 찾아오는 관람객들에게 강의도 하고 담소도 나누는 공간으로도 활용하고 있어 문인들의 구심점 역할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문학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만드는 공간이자 소통의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다. 특히, 바쁘고 번거로운 일상생활을 벗어나 잠시 마음을 내려놓고 휴식할 수 있으며 멋진 가옥의 예스러운 분위기와 힐링을 만끽할 수 있는 공간이다. (출처 : 공주시청)

⑦ [2018 대한민국 국토대전]하숙마을 · 기독교박물관



공주하숙마을은 2017년 7월 개관 이후 공주지역뿐 만 아니라 전국적인 이슈가 됐고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사업'의 모범적 사례로 자주 인용되는 곳이다.

이미 전국에서 여행객이 찾아오는 명소로 각광받고 있으며 각 지자체에서 현 정부가 중점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벤치마킹하기 위해 계속적으로 찾고 있다.

■교육도시 공주하숙마을의 옛 추억 솔솔

공주하숙마을은 침체된 공주원도심에 활력을 주기 위한 거점으로 기획됐다. 공주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교육도시로 1960~1990년대 인근 지역에서 많은 학생들이 공주로 유학하여 하숙하며 공부했던 곳이다. 그렇게 공주에서 하숙을 하며 공부했던 학생들이 이제는 우리나라의 각 지역, 각 분야에서 사회의 중추적인 구성원으로 성장했고, 이제는 당시를 추억하며 향수를 느껴 공주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공주하숙마을(게스트하우스) 조성 사업은 이러한 공주하숙에 대한 기억과 추억을 공감하는 주민과 출향민 등 하숙에 대한 향수를 가지고 있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개인, 단체, 가족 단위로 방문하여 추억을 나누고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했다. 공주원도심에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가치를 제공하여 지역의 새로운 문화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한 사업이다.

공주하숙마을은 공주의 하숙이 가장 많이 이루어졌던 1970년대의 정서를 잘 간직하고 있는 4개 동의 건축물을 당시의 이미지로 복원하고 현대적으로 활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리모

델링했다. 작은 전시공간과 마당을 조성해 여러 가지 문화프로그램을 즐기는 복합문화공간 역할을 하고 있다.

공주시는 이러한 성공을 기반으로 하숙마을의 거점을 확대 조성할 예정이다. 차후 테마골목과 제민천변의 산책로와 함께 문화.예술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계획하고 있다. 또 하숙마을 공주시 원도심 재생사업의 근거지로서의 역할을 부여할 예정이다.

■공주 근대사 복원 공주기독교 박물관

공주는 구석기시대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각 시대별로 다양한 문화유적이 중첩되어 존재하고 있으며 많은 이야기가 전해온다. 그 중에 충청지역 선교의 전진기지였고 공주의 근대를 관통해오면서 종교, 교육, 의료, 육아 등에서 공주시의 근대문화를 이끄는 선구자 역할을 했으며 유관순과 그 오빠가 종교활동과 수학을 했던 곳이 있다. 바로 공주제일교회이다.

공주제일교회는 2011년 6월 20일 충청지역 감리교 선교의 중심지였던 공주 선교부의 중심 역할을 했다. 1931년 건립되어 한국전쟁 당시 상당부분 파손됐지만, 보수시 벽제, 굴뚝 등을 그대로 보존하는 등 그 흔적들이 잘 남아 교회 건축사적으로 등록가치가 있어 등록문화재로도 지정됐다.

그러나, 등록문화재로 지정되기 이전에는 교회 내부에 새 성전건축을 계획하면서 주차장 부지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교회건물을 철거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 하지만 공주시의 설득으로 보존하기로 결정하고 전시관으로 활용하다가 올해 5월 공주기독교 박물관으로 박물관 등록을 마쳤다.

2015년부터 국립공주대학교에 위탁하여 철저한 연구와 고증을 통해 자료를 모으고 분석하여 전시물을 생산하고 전시공간을 디자인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